

동성애와 역사

성혁명의 역사

- 1920년~1940년대 -



●민성길 교수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250여 편의 논문을 저술하여 '국제신경정신약물학회 선구자상'을 받았다. 대한정신약물학회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초대 이사장, 서울 은평병원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성과학연구협회 회장이다.



1. 러시아 혁명 이후

러시아 혁명 초기에 볼셰비키는 이혼과 낙태를 합법화하였고,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과 매춘 사이의 선택”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자유연애를 장려하였다. 여성들도 생산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아이들을 복종적 공산주의자로 만들기 위해 부모 대신 탁아소나 학교에서 어린이 양육을 통제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금방 소련에서 “성적 반동”이 일어났다. 1918년에 소멸된 결혼법이 1930년대 초 다시 돌아왔다. 다시 “의무적 가족”이 지원되기 시작하였고, “임신 중절”은 더욱 어려워졌고, 어린이 양육의 집단화는 중단되었고, 양육책임은 다시 부모의 것이 되었고, 어린이들의 자율성에 따른 “권위주의적 학교제도의 파괴”는 반복되었다. 젊은이들의 성적 자유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이성적 성적 각성”은 “이데올로기적 금욕주의”에 의해 다시 억압받았다. 동성애가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목격한 라이히는 이러한 도덕적 과잉 조처들이 혁명을 위협한다고 분노하였는데,¹ 그 이유는 그가 앵겔처럼 “사회의 성적 과정(sexual process)은 항상 문화적 과정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¹ Wilhelm Reich. *Sexual Revolution. Toward a self-regulating character structure.* (translated by Therese Pol) Farrar, Straus and Giroux. New York, 1974.

2. 정신분석

프로이트(Sigmund Freud 1856-1939)의 정신분석은 결과적으로 빅토리아 시대의 도덕적 위선과 이중성을 폭로하였다. 성을 억압한 결과 노이로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메시지는 인간의 의식은 빙산의 보이는 일각에 불과하며, 그 아래 감추어진 무의식이 실제로 사람들을 통제한다는 것이며, 그 무의식에는 본능 즉 성본능(리비도)도 억압되어 있다는 것이다. (나중에는 공격성도 본능에 추가한다)

동성애에 관련하여서는 프로이트는 전체 저작물을 통해서, 다른 노이로제나 성도착증들과 마찬가지로, 정신성발달(인격발달) 과정에서 고착 또는 퇴행한 병적인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한 동성애자 어머니에 보낸 편지에서 동성애를 “normal variant”라고 표현하고, 치료를 통해 이성애로의 싹을 틔울 수는 있으나 매우 어렵다고 함으로써, 그가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보았다는 “오해”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이후의 모든 정신분석가가 동성애를 정신분석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치료하였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소 엉뚱하게 그의 본능 억압 이론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성의 해방을 암시적으로 제시하게 되었다. 실제 프로이트는 이성주의자였다. 그는 억압된 성을 정신분석을 통해 깨닫고(통찰하고) 그 리비도의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또는 창조적으로 승화(sublimation) 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즉 난폭한 성욕(libidinal energies)을 통제하여, 그 에너지를 문화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라는 것이었다. 그는 성적 억압과 승화는 근대사회

의 존속에 필요하다고 믿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생물학적 에너지(리비도)와 이들을 조절하기 위해 개발한 정신사회적 수단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것이었다. 그 관련성에 대한 최종적이고 원칙적 결론은 일부 일처제적 이성간 결혼(monogamous heterosexual marriage)이다. 그러나 성해방 논리는 이러한 일부일처제를 억압으로 본다. 따라서 성혁명은 성억압의 과정의 반대이다. 프로이트에게 성적 억압의 반대는 (성해방이 아니라) 사회적 혼돈(카오스)이며 사람들 사이의 통제되지 않는 문란과 폭력이었다. 프로이트는 성해방이 섹슈얼리티에 대해 바람직하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즉 성적 억압은 사회적 계약의 긍정적 기초로서, 유럽의 고전적 정치철학자와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일부 사회사상가들이나 무정부주의자들은 정신분석이론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받아들여, 결과적으로 자제(self-control)에 기초한 전통적(주로 기독교적) 가치를 무장해제 시키고, 성혁명과 성해방논리를 옹호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버렸다. 문화의 성화(sexualization)에는 정신분석 뿐 아니라, 다른 철학적 사조(계몽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반기독교 정서 등)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프로이트의 제자이며 19세 연하의 융(C. G. Jung 1875-1961)은 프로이트의 성욕론을 비판하고, 정신분석과 “영성”(spirituality)를 결합하였다. 융 심리학은 하나의 범종교적, 심지어 영지주의적이라 비판받는다. 융 자신은 금욕적이었고 동성애를 병적인 행동으로 보고 치료하였다.



오토 그로스

그로스(Otto Gross 1877-1920)는 오스트리아 일반인 분석가(의사가 아닌)로서 프로이트를 따르다가 나중 무정부주의자로 활동하였다. 그는 ‘유럽 개인주의적 아나키즘’의 철학자 막스 스티너(Max Stirner)와 니체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D. H. 로렌스, 프란츠 카프카 그리고 베를린 다다이즘 운동 예술가들 등에 영향을 주었다. 그는 반정신의학 운동(anti-psychiatry movement)의 초기 활동가였으며 성 해방론자였다. 그는 프로이트가 문명 발전을 위해 성욕을 억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여, 정신분석의 무정부주의 형태를 연구했다. 그는 페미니즘 및 neo-pagan 이론²을 수용하여 계급 없는(non-hierarchy) 황금시대(golden age)의 문명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는 보헤미안으로서 프리섹스를 주장하였으며, 20세기 반문화의 창시자 중 한사람이 되었다. 그는 주류 정신분석 운동으로부터 추방되었고 정신분석 역사에서도 제외 되었다. 그는 가난 속에 죽었다.

2 Modern Paganism, 또는 Contemporary Paganism, Neopaganism 등으로 불린다. 이는 유럽, 북아프리카 및 근동의 여러 천 근대적 역사적 pagan(비기독교 이단) 또는 민간 신앙으로부터 유래된 새로운 집단적 종교적 운동이다. 영성을 추구하며 다신교(Polytheism), 정령주의(animism), 범신론(pantheism)의 이론을 가지며, Eclecticism 내지 Polytheistic Reconstructionism을 보인다. 현대에 이르러 이는 New Age movement과 연관된다.



빌헬름 라이히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 1897-1957)는 가장 영향력 많은 성 혁명가 중 한 사람으로 오스트리아 출신 정신분석 의사였다. 그는 1908년 프로이트가 창설한 비엔나 정신분석학회(Vienna Psychoanalytic Society)에 가입하여 프로이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그는 20세기에 과학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드의 시각, 즉 근대 과학주의(Modern scientism)을 다시 보여준 전형적 인물이다. (정신분석은 의학에서 나왔지만, 과학이라 하기에는 비판이 많다.) 라이히에 의해 맑시즘과 “객관적” 과학(즉 정신분석)이 합쳐졌다. 그는 맑스의 소외이론은 성적 소외(sexual alienation)로 대치하였다. 그에 의하면, 성적 표현(sexual expression 즉 오르가즘)은 자연스러우며 이를 사회(가족, 제도화된 도덕, 국가)가 억압하는 것은 파괴적 행동이다. 그는 성적 억압은 인격발달을 왜곡시켜 권위주의적 행동(파시즘)을 만들어 낸다고 하였다. 그런 점에서 성 억압 때문에 인류역사 6,000년간 전쟁, 프롤레타리아의 착취, “종교적 신비주의” 그리고 파시즘³ 등이 나타났고, 전 세계 인간들을 병들게 하였다.⁴

3 Ollman B. Dialectical Marxism. Social and Sexual Revolution. Chapter 6. Social and Sexual Revolution: from Marx to Reich and Back. https://www.nyu.edu/projects/ollman/docs/ssr_ch06.php

4 Wilhelm Reich. Sexual Revolution. Toward a self-regulating character structure. (translated by Therese Pol) Farrar, Straus and Giroux. New

라이히에 의하면 인간은 육체적 필요(욕구)의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 성을 ‘생식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성은 초자연적이어야 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이 되고, 종교적이 되고, 그래서 억압적이 된다. 그의 결론은 성은 쾌락을 위한 것이므로 절대적인 성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인간 생활의 모든 천형은, 사람들이 어떤 제한 없이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면, 살아질 것이다.”

“성적 욕망을 만족시켜라, 그러면 당신은 지상에 낙원을 창조할 것이다.”

이는 이후 히피 슬로간인 “사랑하라, 전쟁 말고”(make love, not war)의 한 초기 버전이었다.

그는 사회문화를 성화(sexualization)시키고자 하였다. 그의 메시지는 프리섹스를 추구하고 대신 억압적 체제인 전통적인 남녀 간의 가족체제는 파괴하라는 것이었다. (그 자신의 과거 가족관계를 보면 그가 왜 이러는지 짐작해 볼 수 있다)

라이히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성적으로 활발하며, 동시에 어떤 권위에도 저항하는 타고난 혁명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족적 연결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새롭고 솔직한 성 교육을 하자고 하였다. 예를 들어 “금욕의 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위를 권장하였고, “(젊은이들의) 성적 억압은 의무적 결혼과 가정 뿐 아니라 복종적 시민을 만들어

York, 1974

내기 때문에,” 청소년 때 성교를 시작하도록 권장하였다. 낙태를 법적으로 인정하자고 주장하였다. 비정상적 성도 해방(인정)하자고 하면서 동성애를 인정하였다.

그는 문화의 성화가 교회와 전통 국가를 멸절시킨다고 인식하였고, 이것이 그의 목표였다. 그는 맑스보다 더 급진적이었다. 맑스는 유물론자이고 무신론자였지만, 유토피아 공산주의로 가는 “역사의 진보”라는 객관적인 것에 가치를 두었다. 라이히는 결과적으로 맑시즘과 결별하였다. 그 이유는 소련의 볼셰비키 정부가 국가주도의 성해방을 잠깐 실행해 보다가 곧 가족체계를 재건하였고 동성애를 금지하였다. 라이히에게는 이는 재앙이었다.

그는 결국 정신분석학회 뿐 아니라 1933년 공산당에서 쫓겨났다. 그는 유럽에서도 정착할 수 없었다. 그는 북유럽 국가들을 전전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다. 거기서 그는 개업하면서 “orgone energy accumulator”라는 “생명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계를 만들어 판매하다가 (이 기계는 환경으로부터 life force를 빨아들여 감기, 암, 성 불능을 치유한다고 선전하였음) FDA에 의해 사기죄로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1957년 사망하였다. 같이 사기행각을 하였던 그의 동료는 일 년 후 석방되었으나 곧 자살하였다.

생전에 라이히는 영미권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럽에서는 좌파 정신분석가이면서 공산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사후에 그의 저술들은 1960년대 후반의 문화 (성)혁명을 통해 부활되었다. 그가 1930년대에 쓴 『The Sexual Revolution』은 1968년 학생혁명의 성서였고, 이후 에로티시즘 문화의 발

전(성혁명)의 청사진이 되었다. 그의 메시지들은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으로 옷 입혀졌다.

비판

라이히의 주장은 전통적 성윤리에 위배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공산주의의 한 이론으로써 일반적으로 공산주의가 받는 비판도 받는다. 사회주의자로부터도 비판이 있는데, **마르쿠제**는 “성해방 자체가 라이히에게는 개인과 사회적 삶을 위한 만병통치약이었다”고 비판하였다. 맑시스트도 비판하는데, 라이히는 경제적 결정론을 성적 결정론으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조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라이히가 오스트리아공산당에서 축출될 때 대변인은 “당신은 소비로 시작했고 우리는 생산으로 시작한다. 당신은 맑시스트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라이히는 계급투쟁을 “성 억압에 대한 투쟁”으로 바꾸었으나, 이후 자본주의는 성생활을 억압하지 않았고 다소의 개혁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변성하고 있다. 세상문제의 해결을 성기와 오르가즘에서 찾는 것 같은 모양새는 정신분석의 평판을 나쁘게 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정신분석에 근거하여 사회나 정치를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런 정신분석은 “과학의 이름”으로 다른 사회정치적 내지 철학적 판단과 논의의 어려운 연구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면제해 주기 때문에 쉽게 남용된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나 그 추종자들은 반대자와 논쟁하는 대신 반대이론을 단순하게 정신의학적 근거로 기각해 버린다.⁵

5 Blake C, Phelps C. History as social criticism: Conversations with Christopher Lasch. *Journal of American History* 1994;80(4):1310-1332.

3. 프랑크푸르트 학파

현대 성 자유의 혁명에 기여한 사상가는 마르크제를 포함한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빌헬름 라이히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사상은 칼 맑스를 따르는 신맑스주의(Neo-Marxism)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1923년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맑시즘의 과학적 연구를 위해 프랑크푸르트암마인 대학교와 연계해 프랑크푸르트 사회연구소(Frankfurt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가 창설되었다. 1930년대 이 연구소의 소장이었던 막스 호르크하이머는 테오도어 아도르노(Theodor W. Adorno, 철학자, 사회학자, 음악학자), 에리히 프롬(Erich Fromm 정신분석학자), 허버트 마르쿠제(Herbert Marcuse 철학자)와 같은 이 학파의 가장 뛰어난 이론가들을 연구소로 초청하였다. 나치스는 1933년 이 연구소를 폐쇄하였다. 이 연구소를 뉴욕의 콜럼비아 대학교가 유치하였다. 2차대전 후 1946년 프랑크푸르트 시에 다시 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는 전후에도 맑시스트들의 근거지가 되었다.

처음 프랑크푸르트학파는 정통 마르크스주의 학자들로 이뤄져 있었으나, 이는 점차 느슨히 연계된 학자들의 집단 명칭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① 1918년과 1919년 사이에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믿었던) 독일 등의 서유럽에서 나타난 노동자 계급의 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것, ②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발전된 독일에서 일어난 나치즘, ③ 20세기에 예상 밖으로 빠르게 발전한 자본주의, ④ 소련 공산주의 사회의 문제점들을 목격하고, 전통적 마르크스 이론으로

이런 예상 밖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들은 이제 자본주의 비판과 더불어 맑시즘과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사회 발전 과정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⁶ 그 일반적 연구 패러다임은 공통적으로 맑스-헤겔 이론의 전제 하에, 다른 여러 학문에서 해답을 위한 이론을 찾는 것이었다. 다른 학문으로는 칸트(독일 관념론), 정신분석, 반실증주의 사회학,⁷ 실존주의, 루카치 죄르지, 특히 정신분석학까지 광범위하게 끌어들이었다. 그들의 연구는 사회심리학이나 문화비평 등 광범위하였다. 그들이 개발한 이론은 실증주의(positivism), 유물론, 결정론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었다. 이론적 기반으로는 한편은 맑스주의 이론, 다른 한편은 프로이트 정신분석으로, 그들은 이 두 가지를 결합하였다. 예를 들어 Adorno는 “**권위주의적 인격**”(authoritarian personality)이라는 정신병리를 정신분석적 틀에 근거하여 연구하였는데, 이 인격은 “권위적 가족”에 의해 발달하고 나중 “잠재적 파시스트”로 이행하는 성격이었다. 이 이론은 결국 가족의 해체(deconstruction)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목적은 공산주의 원리에 따라 사회를 변혁하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신을 거부하고, 종교(기독교)를 반대하고, 결국 가족을 해체하려는 것이다. 이는 오랜 맑시즘의 포도주에 새 병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것을 그들은 “**critical theory**”(비판 이론)라 불렀다. 이 이론은 이데올로기 비판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이론은 의식(넓게는 이데올로기)이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개혁하

6 https://en.wikipedia.org/wiki/Frankfurt_School

7 antipositve sociology -과학적 연구방법으로 사회를 연구할 수 없고 인식론(개념, 생각, 언어 등) 같은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다는 것. 주요 학자로 Weber, Simmel 등이 있다.

기 위한 사회적 실천을 매개하는 것으로 본다. 이데올로기는 현실 속에서 불균형적 힘의 관계를 왜곡, 은폐, 정당화하기 때문에 이데올로기를 비판함으로써 현실세계의 왜곡을 드러내고 올바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현대 인간사회 생활을 지배하는 근원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인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들 사상은, 특히 마르크제는, 68학생 운동과 그에 따른 성 혁명 운동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여 주었다.

4. 문화인류학

현대 사회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1920년대 원시 사회(primitive society)를 현장에서 연구하는 인류학이 유행하였다. 그 대표적 학자가 미드였다.

마가렛 미드

1928년 문화인류학자 미드(Margaret Mead 1901-1978)는 동료 루스 베네딕트(Ruth Benedict 1887~1948))⁸와 같이 사모아 섬에서 9개월간 머물면서 토착민 사회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를 1928년 『Coming of Age in Samoa』라는 저술을 출판하였다.⁹ 사모아는 이상적 조화를 지닌 전원사회로, 경쟁도 없고 계급도 없고, 성에 대한 가혹한 도덕적 규율도 없었다. 청소년들은 서

구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storm and stress”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프리섹스를 즐기며 많은 파트너와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나 갈등 없이 순조롭게 성인기로 이행된다는 것이었다. 거기서는 기독교적 도덕성이나 자연법 같은 것은 낯조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의 연구 주제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고 행복한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연구결과를 근거로 미드는 미국 사회의 성적 억압을 비판하였다. 그녀는 성 문제를 공공사회로 끌고 나왔으며 성적 자유사상이 학계를 석권하는데 기여하였다.

당시 학술세계에서는 기독교를 부정하거나 니체가 말한 대로 신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증거를 찾으려고 애썼는데, 미드의 연구가 유대-기독교적 가치가, 좋게 말하면 낡은 것이거나, 최악으로 말한다면 손상되었다는 증거로 보았다. 따라서 이 책은 1930년대 일어나고 있었던 일차 성혁명 사조에 물들고 있던 학계에 큰 호응을 일으켰다. 그녀의 업적은 1960년대의 페미니즘, 성혁명, 반문화 경향 등에 영감을 주었다.

비판

그러나 20년 후 미드의 연구는 (나중 킨제이도 그러했지만) 뉴질랜드 인류학자 프리만(Derek Freeman 1916-2001)에 의해 거짓으로 드러났다. 프리만은 저서 『Margaret Mead and Samoa: The Making and Unmaking of an Anthropological Myth』(1983)에서 사모아 사람들은 매우 엄격한 청교도적 성윤리를 가지고 있었고, 청소년들은 문란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

8 미국의 문화인류학자로 주요 저서로 『국화와 칼』 등이 있다.

9 Margaret Mead. https://en.wikipedia.org/wiki/Margaret_Mead

청소년들은 서구 청소년들과 같은 성적 위기, 비행, 자살, 폭력 등을 겪고 있었다. 그는 미드가 증명할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맞는 정보만을 채택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사모아의 성문화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전적으로 두 명의 어린 사모아 소녀들한테서 얻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프리만은 그 두 소녀를 만나보았다. 이미 나이트 그 여자들은 미드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은 당황해하면서 ‘그 코가 큰 한 백인 여자에게 그녀가 듣기를 원하는 정보의 유형을 잘 알아채고 장난하듯이 거짓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었다’고 웃으면서 말하였다고 한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성적 탈선 이야기를 미드가 믿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한다. 미드는 예민하고 솔직한 질문을 하는 것은 사모아의 예의규칙을 어긴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미드는 그 소녀들이 사모아의 진정한 성문화를 발견하게 해주었다고 확신하고 승리감에 도취되었었다. **그러나 그 소녀들이 장남삼아 한 조코가 전 북미의 학계에 결정적으로 곤란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대학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이 침식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프리만의 비판이나 다른 미드에 대한 비판을 비방하고 모욕하였다. 한편 사모아 출신 학자들은 자신들이 성적으로 자유스럽고 행복하다는 미드의 기술에 불만스러워 했다. 그러나 지금은 미드의 연구가 치명적인 거짓이라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은 지나 현재 우리의 문화는 미드가 가졌던 소원성취적 생각을 간직하게 되었고

그녀의 이론을 취소하려 하지 않게 되었다.¹⁰

어쨌든 미드의 연구는 미국에서 성 억압적 문화를 변화시키고 1930년대 성혁명을 이끌었다. 키제이가 “성혁명의 아버지”라 한다면, 미드는 아마도 “성혁명의 어머니”라 할 만하다. 키제이가 범성애적 쾌락주의자였듯이 미드도 (딸이 밝힌 바에 따르면) 3번 결혼했고, 루스 베네딕트 등 동료 여성들과 여러 번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였다.

5. 심리학

행동주의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의 진화론과 그에 근거한 다윈주의가 인간이 매우 발달한 원숭이 이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행동주의(behaviorism)가 나타날 길을 예비하였다. 20세기 들어 파블로프(Ivan Pavlov 1849-1936)는 종을 치면 개가 침을 흘린다는 유명한 생리학적 실험을 하였고, 스킨너(B. F. Skinner 1904-1990)는 재강화 학습으로 비둘기에게 탁구를 가르칠 수 있었다. 그들은 동물실험을 근거로, 인간을 긍정적 및 부정적 자극으로 조건화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상과 별로 원하는 행동을 학습시킬 수 있는) 순응적인 대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행동주의 심리학을 학습이론(learning theory)이라고도 한다. 이 이론을 근거로 왓슨(John Watson 1878-1958)은 사람의 노이로제를 치료하였다. 왓슨의 『Behaviorism』(행동주의)(1914)에 의하면

10 Dreger A. Sex, Lies, and Separating Science From Ideology. Atlantic. 2013. <https://www.theatlantic.com/health/archive/2013/02/sex-lies-and-separating-science-from-ideology/273169>

인간은 재조건화(학습)을 통해 종교, 전통, 그리고 도덕성에 덜 매이게 조작할 수(학습시킬 수) 있다. 현재 가정과 학교에서 행하는 상벌의 훈육이나 정신과에서 시행하는 탈감각치료,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이용하는 치료 등이 모두 행동치료에 속한다. 1970년대까지 많은 정신과의사들은 불쾌감을 가함으로 동성애를 치료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혐오치료(aversion therapy)라 불렀다.

행동주의자들과 여론 조작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은 종교, 전통, 그리고 도덕성에 덜 매이도록 재조건화 할 수 있고 또 그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이후 허슬리(Aldous Huxley)의 소설 『용감한 신세계』에 영감을 주었는데, 거기서 인간은 노예제를 의문 없이 받아들여도록 조건화된다.

행동주의는 사회 공학으로 발전하였다. 즉 버니(Edward Bernay 1891-1995)는 열렬한 무신론자로서 최초의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회공학자로서, 행동주의 심리학의 방법으로 “그들이 알지 못한 채 우리의 뜻에 따르도록 집단을 통제하고 조직적으로” 대중의 여론을 조작하려 하였다.¹¹ 그는 이 기술을 “engineering of consent”(허락(을 얻어내는)의 공학)이라 하였다. 그의 가장 유명한 책은 『선전』(Propaganda)(1928)이다. 여기서 그는 보이지 않는 사회의 기전(mechanism)을 조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정부를 구성하는데, 이들이 진정한 나라의 지배 권력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통찰은 괴벨스

(Joesph Goebels)에 의해 제3제국의 선전에 사용하였다.

베를슨(Bernard Berelson 1912-1979)은, 라디오와 TV 그리고 여론 조사를 통한 정교한 집단 조작(mass manipulation) 기술을 더욱 발전시켰다.¹² 그는 “의견(여론)이란 말하자면 도덕적 절대나 신성한 법칙의 표현이 아니다. 일단 이 ‘세속화’가 실현되면, ‘의견들’(여론)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통제한다”고 하였다. 그는 록펠러가의 지원을 받아, 많은 돈과 풍부한 노하우로, 피임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를 바꾸어 인구감소 프로그램이 성공하도록 조작하였다.¹³ 그는 “종교적 신념은 사실상, 의견(여론)의 반대이다.... 성도덕은 가장 중요한 종교적 사고였으며, 이는 “여론”의 영역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 예술

문학

이 시기의 대표적 성 해방적 소설로 죠이스(James Joyce)의 『율리시즈』(1922), 로렌스의 『차탈레이 부인의 사랑』(1928), 헤리 밀러의 『북회귀선』(1934) 등이 있다. 18세기 음란물로 인정된 클리랜드(John Cleland)의 『파니 힐』(1750년 출판, 1936년 재간행)의 재간행과 판매를 법원들이 허락하였다.

11 Edward L. Bernays. Propaganda. New York: H. Liveright, 1928.

12 Berelson B, Janowitz M. Reader in Public Opinion and Communication. Public Opinion Quarterly 1950;14(3).

13 Kuby G. The Global Sexual Revolution: The Destruction of Freedom in the Name of Freedom. LifeSite 2015.

초현실주의(Surrealism)

초현실주의(Surrealism)는 1920년대 시작된 문화-예술 운동이다. 일차대전 동안 다다운동에서 발전하여 나왔다. 중심지는 파리였고 그 대표적 이론가는 프랑스 시인 앙드레 부르통(Andr Breton) 이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사드, 맑스, 프로이트, 사드 등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혁명을 원하였으나, 실제 억압에 대한 투쟁은 적었다.

초현실주의는 주로 미술에서 나타났는데, 화가들은 그림에서 무의식이나 꿈을 표현한다고 하면서 황당한 비논리적인, 그러나 사진과도 같은 정확성으로 일상적 대상으로부터 괴상한 장면들을 그려내었다.¹⁴ 이들은 인류가 최고 충만한 경지에 도달한 가상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것을 제안하였다. 문학에서는 시인인 루이 아라공(Louis Aragon), 시인이자 소설가인 로베르 데스노스(Robert Desnos) 등이 있다. 한국 문학에서 대표적으로 시인 이상이 있다.

초현실주의는 무해해 보이지만, 그 예술가들은 통상성에 도전하고 무의식을 이성의 족쇄로부터 해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사조는 결과적으로 라이히의 사상을 재확인하는 것이었다. 라이히 사상이란 새로운 성적 도덕성으로 맑시즘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는 신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밖으로 투사되었던 자신을 되찾는 것이었다. 초현실주의는 기독교에 대한 결정적 전투는 오로지 성 혁명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¹⁵ 그들은 “사회적 제국주의와 교회에 의해 보존되어 왔던 고통과 단념의 지긋지긋한 도덕성을 쓸어 내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20세기 초 사회를 지배하던 성적 타부들에 도전하였다. 섹시즘과 동성애 혐오에 대해 질문하기보다 폭력을 폭로하는데 더 열심이었다.

부르통은 1929년 가장 간단한 초현실주의적 행동은 “거리로 나가 마구잡이라도 총을 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비관적 가학주의는 Magritte같은 화가의 묘한 환상에서 드러난다.



Magritte's The Rape (1934)

얼굴 자리에 몸통이, 입은 음부로 표현하였다. 이는 현대사회의 여성의 비인간화를 고발 한다고 한다.



Man Ray's Imaginary portrait of D.A.F de Sade (1938)

화가 만 레이(Man Ray)는 사드를 “혁명적 도덕가이며 시인”이라 찬양하며 그의 초상화를 자제되지 않은 폭력의 강한 이미지로 그렸다. 많은 초현실주의 그림들의 주제가 폭력, 성이다.

14 Chilvers I, The Oxford Dictionary of Art and Artis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Breton A. Manifesto of Surrealism. Tcf.ua.edu. 1924-06-08. (Retrieved 2012-12-06).

15 Del Noce A. The Crisis of Modernity. Mcgill-Wueens University Press, 2014. <https://www.firstthings.com/article/2017/06/what-del-noce-saw>



Max Ernst의 La joie de vivre (1936)

무의식의 정글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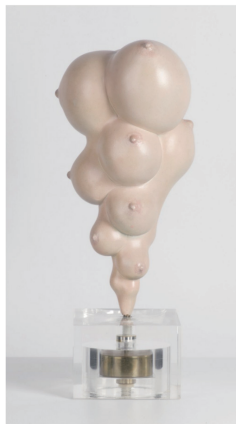


Duchamp의 Please Touch (1947)

여성을 잘려진 젖꼭지로만 표현한다.

Hans Bellmer's The Top (1938)

여러 유방들을 한 블록에 모았다.



초현실주의는 대중문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그림들은 전통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성의 아름다움을 모욕하거나 파괴하는 것으로, 성도착적 시각을 표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초현실주의는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문화적 표현으로서 지식인과 예술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초현실주의는 전세계로 퍼져나가 미술, 문학, 영화, 음악 등 뿐 아니라 언어, 정치, 철학, 사회학 이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들의 사상은 급진적 정치사상에 영향을 미쳤고 1960년대 신좌파 활동과 성혁명, 그리고 1968년 프랑스 학생 혁명의 발생에 기여하였다.

(다음호에 계속)